

서술 명사의 기준과 의미 구조

강 범모

(고려대학교)

bmkang@korea.ac.kr

http://ikc.korea.ac.kr/~bmkang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공부를 하다'에 나타나는 '공부'와 같은 한국어의 술어 명사(predicative noun)에 관한 것이다. 술어 명사는 '하다'라는 전형적인 기능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일이 많으므로 본 논의에서 기능 동사 특히 '하다'에 관한 언급을 피할 수는 없다. 근래 홍재성(1999), 채희락(1996) 등 술어 명사 및 기능 동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전반부에서 홍재성(1999)의 술어 명사 및 기능 동사의 논의와 관련하여, 술어 명사의 정의 및 판별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후반부에 몇 가지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를 Pustejovsky의 생성어휘부 이론(Pustejovsky 1995, 이정민 외 1997, 강범모 1999)에 따라 표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술어 명사의 의미적 정의

술어 명사는 명사적 특성과 술어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 범주의 단어이다. '공부'라는 단어는 '책상'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와 마찬가지로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단어는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그것의 논항을 가지며 기능 동사의 도움을 받다 명사 외적인 논항을 취할 수 있다. '언어학을 공부할 하다'의 '언어학'은 '공부'의 대상으로서 '하다'라는 동사에 기인하는 목적어라기보다는 '공부'에 의해서 지정되는 목적어이다. 보통 '하다'라는 전형적인 기능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명사들을 중심으로 술어 명사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근래 홍재성 외(1997) 및 홍재성(1999)을 포함한 일련의 논의로 인하여 좀더 넓은 관점에서 술어 명사 및 기능 동사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즉, 다음과 같은 '하다' 이외의 구분에서도 서술 명사와 기능 동사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가. 도둑이 체포가 되었다.
나.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
다. 교수는 학생에게 산책을 시켰다.
- (2) 가. 대령이 반란을 일으켰다.
나. 국민이 자유를 누렸다.

홍재성(1999)은 '되다', '당하다'의 피동적 기능 동사 및 '시키다'의 사동적 기능 동사 등 비교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능 동사뿐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다'의 '일으키다', '자유를 누리다'의 '누리다' 같은 동사들도 모두 기능 동사로 파악한다. 이것은 '반란'이나 '자유'가 서술 명사라는 주장과 맞물려 있다. 이제 홍재성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의 기능 동사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서술 명사의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홍재성은 '술어 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3) 술어 명사는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이다.

명사 범주 어휘에는, 그것이 의미상 술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특유의 형태, 통사론적 기제에 의해 시제, 상, 법, 양태 등의 문법 범주가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정문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들 문법 범주가 규칙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들 표지를 받쳐 주는 버팀목 support 같은 역할을 하는 요소가 필요"(p.138)하고 바로 이러한 버팀목 요소가 기능동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서술 명사를 의미적으로 먼저 정의하고 기능 동사는 그 서술 명사를 문장 내에서 실현시킬 때 필요한 요소로서 부차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명사들은 그것이 '하다'라는 전형적인 기능 동사와 함께 실현될 수 없더라도 모두 서술 명사로 정의되며, 그 명사들과 공기하는 술어들은 모두 기능 동사로 분석된다. 다음의 (4)와 (5)의 명사들은 모두 서술 명사로 분류된다.

- (4) 가. [행위 1] 공부, 채포, ... (를 하다)
나. [행위 2] 반란(을 일으키다), 오류(를 범하다), 불공(을 드리다),
도움(을 주다), 호통(을 치다), 횡방(을 놓다)
다. [행위 3] 손해(를 끼치다), 양전/점잔(을 빼다), 믿음(을 갖다)
라. [행위/수동] 수모(를 받다), 부상(을 입다),
마 [상태 1] 조용, 행복
바 [상태 2] 자유(를 누리다) 실의(에 빠지다), 원한(을 품다), 환멸(을 느끼다),
연민(을 느끼다), 애착(이 가다)

- (5) 가. [사건] 지진, 불, 소문(이 들다), 비, 눈
나. [병] 병, 감기,
다. [관계/인물] 아버지, 어머니
라. [관계/부분] 안, 밖, 겉,
마. [관계/신체] 손, 발, 얼굴,

그런데, 이러한 의미적 분석은 '하다'라는 기능 동사 하나만을 가지고 서술 명사의 후보를 고려하는 형태, 통사적 기준에 비해 좀더 폭넓은 접근을 허용하지만, 그 포용성이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필자는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명사들 중 (4)의 행위,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서술 명사의 가능성이 높지만, (5)의 사건 및 관계 명사들은 우선적으로 서술 명사의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건 명사인 '지진, 불'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진이 나다, 불이 나다'의 '지진'과 '불', 혹은 '비가 오다, 눈이 오다'의 '비'와 '눈'이 서술 명사라는 주장은 한국어에서의 무논항 술어의 인정을 바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 명사 '비'는 비가 오는 사건을 의미하며 다른 논항이 필요 없이 기능 동사 '오다'와 결합하여 비가 오는 사건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마치 인구어의 기상 표현들이 외부 논항이 없이 사용되는 것과 평행한 분석이다(예를 들어 영어의 It rains of it는 의미적 논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에서 잘 들어맞지 않는다. 우리말에서 기상 명사와 같이 쓰이는 '오다'는 분명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와 '눈'은 실체이고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는 내려오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비가 내리다, 비가 떨어지다, 비가 내리치다, 비가 들이치다, 비가 퍼붓다, 비가 날리다'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지진'의 경우도 '지진이 나다'의 '나다'가 비교적 어휘적 의미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이 발생하다'의 '발생하다'는 확실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진이 나다'의 '나다'와 동일한 의미이다. 따라서 '비가 오다, 지진이 나다'의 '비'와 '지진'은 일반 동사 '오다, 나다'의 논항이며, 한국어의 일반적 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비'와 '지진'을 무논항 술어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비'는 '책상',

‘개’와 같은 실제적 명사이며, ‘지진’은 외부적으로 파악된 사건을 나타내는 비서술 명사이다.

방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개’가 어떠한 구체적 실체(entity)를 개체(individual)로 파악하여 가리키듯이 ‘지진’은 어떠한 사건(event)을 개체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형식의미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개’가 개체로서의 실체의 집합을 외연으로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진’은 개체로서의 사건의 집합을 외연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개’라는 표현으로 내가 기르는 특정한 개를 가리킬 수 있듯이 ‘그 지진’이라는 표현으로 198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특정한 지진을 가리킬 수 있다. 타입으로 말하자면, ‘개’의 의미와 ‘지진’의 의미는 모두가 <e,t> 타입이다. 결국, 홍재성(1999)에서 무논항 서술 명사로 제시하는 ‘지진’이나 ‘비’가 사건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체로서의 사건의 집합을 의미할 뿐이며 결코 그것 자체로 술어로 파악될 수 없다.

‘병’, ‘감기’, ‘이질’ 등 병을 의미하는 명사들도 ‘감기가 들다, 이질이 창궐하다’ 등을 기반으로 사건을 의미하는 서술 명사로 주장될 수 있겠으나, 앞에서 ‘지진, 비’의 논의와 같은 논지로 서술 명사의 목록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감기가 들다, 병이 들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상태의 의미로서 외부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 명사로 파악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병으로 고생하다’의 ‘병’은 서술 명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의미적으로는 ‘병이 들다, 병에 걸리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문제이다.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 명사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자.

한편, 관계를 표시하는 명사들로 제시된 ‘아버지, 안, 손’ 등은 분명히 모두가 관계 명사라고 할 수 있지만, ‘관계 명사’가 술어적 의미의 관계를 표시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서술 명사의 목록에서는 제외해야 한다. 즉, ‘관계 명사’의 관계는 명사 자체가 주어로 나타나는 외부 논항 이외에 내부 논항을 갖는 명사의 부류이며, 이것이 반드시 관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명사들은 ‘개’, ‘책상’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와는 달리 주로 ‘X-의 N’ 구문으로 쓰이거나, 속격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X-의’가 의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 (6) 가. 이것은 책상이다/개이다
- 나. 이분은 정수의 아버지이다.
- 다. 이것이 정수의 팔이다.
- 라. 이 쪽이 집의 안이다.

물론 ‘정수의 책상’, ‘정수의 개’ 등의 표현도 가능하지만 이 때의 속격은 ‘책상’이나 ‘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반드시 누구의 아버지이며(친족 명사), ‘팔’은 반드시 누구의 팔이며(신체 부분 명사), ‘안’은 반드시 무엇의 안이다(부분 명사).

이렇게 일반적인 명사와 구별되는 관계 명사가 ‘폭격’과 같은 서술 명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시 언급하지만 서술 명사는 행위, 상태, 사건을 나타내지만, ‘아버지’와 같은 명사는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논항을 취하여 다른 개체를 나타낸다. 즉, ‘아버지’는 ‘폭격’과 마찬가지로 내부 논항을 요구하지만, 그 논항을 취했을 때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행위, 상태, 사건이 아니라 개체인 것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구문상의 차이로도 드러난다

- (7) 가. 이 물체가 개의 발이다.
- 나. *이 물체가 도시의 폭격이다.
- (8) 가. *이것의 개의 발 / *김씨의 정수의 아버지
- 나. 공군의 도시(의) 폭격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공군이 도시를 폭격한다’의 뜻으로 ‘공군의 도시의 폭격’이 가능한 반면, ‘김씨가 정수의 아버지이다’라는 뜻으로 ‘김씨의 정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폭격’이 행위주가 대상을 폭격하는 사건 혹은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아버지’는

두 대상 사이의 아버지 관계 자체보다는 어떤 개체 논항을 취하여 개체와 아버지 관계를 갖는 개체를 지시하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격렬한 폭격'과 같은 사건 수식이 가능한 반면 '깊은 아버지'(깊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뜻으로)와 같은 표현은 불가능하다. 혹자는 '아버지이다'와 같은 표현에서는 아버지의 관계 자체가 속성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다'를 기능 동사로 파악하는 홍재성(1999)의 입장파도 상통한다. 그러나 '이다'를 기능 동사로 상정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서술 명사를 분리해 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 명사를 포함하여 모든 명사들에 '이다'가 붙으면 그것은 하나의 속성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상'에 '이다'가 붙은 '책상이다'는 분명 '책상임'의 속성을 지시하며 이것은 '아버지이다'가 '아버지임'의 속성을 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책상'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다'가 붙어서 속성 혹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책상'보다 하나 더 많은 논항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함수, 논항의 의미적 타입에 입각하여 서술 명사의 정의를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정의는 행위, 상태 명사를 서술 명사로 분류하게 하고, '지진, 비, 아버지, 손' 등의 명사들을 일반적인 명사로 분류하게 할 것이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 타입으로 개체, 진리치, 그리고 사태(eventuality) 세 가지를 상정하고, 이것들을 각각 e, t, s로 표시하기로 하자(사태는 상황(situation)이라는 용어로 표시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태란 상태, 과정, 전이 등 모든 종류의 사건 유형을 아우르는 용어이다(Bach 1986). 이때, 일반적인 명사들은 모두가 개체의 집합, 즉 <e,t> 타입의 의미를 갖는다. Davidson (1967), Parsons (1990) 등의 분석을 받아 들여, 술어는 일반적으로 사태 논항을 마지막 논항으로 갖는 것으로 분석하면, 이것들의 의미는 <e, ...<s,t>> 타입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가. <e,t> : 책상, 개, 사람, ...
- 나. <e,<e,t>> : 아버지, 팔, 뺨, ...
- 다. <e,<s,t>> : 웃다, 뛰다, 예쁘다, 크다, ...
- 라. <e,<e,<s,t>>> : 때리다, 잡다, 먹다, ...
- 마. <e,<e,<e,<s,t>>>> : 주다, ..

앞에서 논의했던 서술 명사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타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10) 가. <e,t> : 비, 지진, 음악회, ...
- 나. <e,<e,t>> : 아버지, 팔, 뺨, ..
- 다. <e,<s,t>> : 연설, 반란, 행복, ...
- 라. <e,<e,<s,t>>> : 파괴, 연구, ...
- 마. <e,<e,<e,<s,t>>>> : 선사, 전달, ...

이제, '비, 지진, 음악회'와 같은 (개체로서의) 사건 명사와 '아버지, 팔, 뺨'과 같은 관계 명사는 마지막 논항으로 사태(행위 사건, 상태)를 포함하는 서술 명사와 확연히 구별된다. 즉, 함수-논항의 타입에 기초한 서술 명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1) 서술 명사: 술어 의미 즉, <e, ... <s,t>> 타입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
- 일반 명사: <e, .. <e,t>> 타입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

지금까지 서술 명사의 의미적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의미적 정의에 입각한 서술 명사들은 어떠한 통사적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3. 서술 명사의 형태, 통사적 판별 기준

‘공부, 체포’와 같은 명사들은 행위를 의미하고 논리적으로 <e, ..<s,t>> 타입으로 서술 명사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 명사들이 구체적 사물을 지칭하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라는 사실이 그러한 판단에 도움을 준다. ‘책상, 개’와 같은 구체 명사가 서술 명사의 타입이 아닌 것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어머니, 팔’ 등 관계 명사들도 타입에 관한 의미적 직관으로 서술 명사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빨래’ 같은 명사는 구체적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빨래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구체적 사물의 이름이 그 사물을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가리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결국 그러한 가능성이 공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형태적, 통사적 기준에 따라 판별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기능 동사 ‘하다’는 서술 명사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하다’라는 동사보다는 ‘운동’, ‘체포’라는 명사가 의미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다.

- (12) 가. 학생이 운동을 한다.
- 나. 경찰이 도둑을 체포를 하였다.

이 예에서, ‘운동을 하다’라는 구가 주어만을 요구하고 ‘체포를 하다’라는 구가 목적어와 주어를 요구하는 것은 ‘하다’의 중의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운동’과 ‘체포’라는 두 가지의 서술 명사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판단은 ‘하다’에 중의성을 인정할 경우 수많은 다른 유형의 서술 명사 구문에서도 다른 ‘하다’를 인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동시에(‘학생이 아이에게 편지를 전달을 하였다’), 다음과 같이 ‘하다’가 없는 구문에서도 논항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13) 가. 학생의 운동 / 학생이 운동 (중)
- 나. 경찰의 도둑 체포 / 경찰이 도둑을 체포 (중)

그렇다면 ‘하다’와 같이 출현할 수 있는 모든 명사는 서술 명사인가? 채희락(1996, 1997)은 이 문제에 관해 이전의 연구 결과를 개괄하고 나름대로의 제안을 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제시하는 서술 명사의 정의 내지 판별 기준이다.

- (14) “비실체성 명사 중의 일부인 움직임과 상태/성질을 나타내는 명사만 경술어 ‘하-’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술명사라는 것은 경술어 ‘하-’와 결합할 수 있는 비실체성의 명사만을 지시하는 용어이다.” (채희락 1996: 432)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만이 서술 명사이며 ‘자유’와 같은 비실체성 명사는 서술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홍채성의 의미적 정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타입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의 입장과 다르다. 즉, 우리는 ‘하다’ 이외의 기능 동사가 서술 명사와 결합할 수 있고, 따라서 ‘하다’와의 결합 가능성이 서술 명사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채희락의 서술 명사 정의는 다시 경동사 ‘하다’의 판별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다’ 중에는 경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숙제를 하다, 밥을 하다’의 ‘하다’는 일반 동사로서 ‘공부를 하다’의 ‘하다’와는 다르기 때문에 ‘숙제, 밥’은 ‘공부’와 달리 서술 명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 동사로서의 ‘하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명사에 대하여 그것과 쓰인 ‘하다’가 일반 동사인지 기능 동사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밥, 숙제, 일, 빨래, 틀

니'라는 명사들을 그는 다음과 같이 판별하였다.

- (15) 가. 서술 명사: 일, 빨래, 틀니
나. 일반 명사: 밥, 숙제

여기서 이러한 분류에 대한 그의 통사적 논의를 다루지는 않겠으나, 우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16) 가. 서술 명사: 일, 빨래, 숙제
나. 일반 명사: 밥, 틀니

이와 같은 분류는 채희락(1996)이 고려했다가 부적절한 것으로 치워 버린 '중' 테스트를 오히려 의미 있게 적용한 것이다.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중'은 (새로이 구분한) 서술 명사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17) 가. 일 중, 빨래 중, 숙제 중
나.*밥 중, *틀니 중

다시 애초에 제기하였던 문제로 돌아와, '하다'가 서술 명사의 필요 조건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 타입 이론의 의미적 관점에서 서술 명사를 정의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일 수밖에 없다. 홍재성(1999)에서 제시하듯이, 직관적으로 행위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많은 명사들이 '하다' 이외의 동사와 함께 쓰여 궁극적으로 그 명사의 내부 논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전체 문장의 논항으로 실현시킨다. 앞에서 인용하였던 홍재성의 서술 명사 제시 목록 (4)를 다시 상기해 보자

[행위 1]('공부')과 [상태 1]('행복')의 명사들을 제외한 다른 명사들은 '하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의미적으로는 '공부를 하다'와 '반란을 일으키다'의 근본적 차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 이들의 공통점은 앞의 '중' 테스트나 명사문 테스트에서 잘 나타난다.

- (18) 가. 학생이 언어학을 공부
나. 장교가 지방에서 반란
(19) 가. 학생이 공부 중
나. 장교가 반란 중

다만, 이러한 테스트가 모든 서술 명사에 적용될 수는 없다

- (20) 가.*조용 중, *자유 중
나.*도움 중, *암전 중

(20가)의 경우와 같이 상태성 명사의 경우 '중'이 공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20나)은 의미적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위의 많은 서술 명사가 선택하는 기능 동사가 다양함을 고려한다면, 어떤 하나의 테스트가 모든 서술 명사를 구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성립하는 테스트는 그것 나름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중'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서술 명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하나의 형태적 현상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케, -토록' 테스트이다.

- (21) 가. [행위 1]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공부케 했다.

- 나. [행위 2] 장군이 군사로 하여금 반란토록 부추겼다. (*도움케)
- 다. [행위 3] 이 아이를 암전케 만들어라. (*민음케)
- 라. [행위/수동] 악당이 많은 사람을 부상케 만들었다.
- 마. [상태 1] 국민을 행복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바. [상태 2]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옵소서.

원래 '케, 토록'은 '-하게, -하도록'의 준말이다. 따라서 '공부하게, 공부하도록'을 '공부케, 공부토록'으로 그리고 '암전하게, 부상하게, 행복하게'를 '암전케, 부상케, 행복케'로 줄여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반란하다, 자유하다'라는 말이 없지만 '반란케, 자유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주 문법의 용어로 설명하자면(Kang 1988), ['하'+게]가 함수 합성을 통하여 '-케'로 융합된 후, 이것이 좀더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서술 명사를 특징지을 수 있는 완벽한 통사적 기준은 없지만, 꽤 쓸 만한 다소 불완전한 기준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들을 그 중요도의 순서로 배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언제나 ~이다'는 '그는 언제나 빨래다(빨래를 한다)'와 같은 구문인데, 채희탁 1996에서 언급된 것이다.)

- (22) 가. '-케, -토록' 결합 가능
- 나. '하다' 기능 동사 결합
- 다. 명사문 가능
- 라. '중' 구문
- 바. '언제나 ~이다'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몇 개의 명사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명사의 목록은 추상/비실체성 명사와 실체성 관련 명사의 두 부류로 나누어 제시한다.

(23) 추상/비실체성 명사

	-케/토록 '하다'	명사문	'중'	'언제나 ~이다'
공부, 연구	o	o	o	o
반란, 불공	o	x	o	o
행복, 평등	o	o	?	x
자유, 평화	o	x	?	x
잠, 춤	x	x	o	x
종교, 정신	x	x	x	x
음악회, 지진	x	x	x	?

(24) 실체 관련 명사

	-케/토록 '하다'	명사문	'중'	'언제나 ~이다'
빨래, 노래	o	o	o	o
숙제	o	o	?	o
나무	o	o	?	?
머리	o	o	?	?
편지	o	o	?	o
밥, 떡	x	(o)	x	x
어머니, 친구	x	(o)	x	x
고양이, 책상	x	x	x	x

위의 예들에서 보는 것처럼, 비실체 명사 중에는 '공부, 연구'와 같이, 그리고 실체 관련 명사 중에는 '빨래, 노래'와 같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전형적인 서술 명사들이 있는가 하면,

비실체 명사 중 '종교, 정신, 지진' 등과 같이, 그리고 실체 관련 명사 중 '밥, 어머니, 고양이' 등과 같이 전형적인 비서술 명사들이 있으며, 그 중간적 성격을 띄는 명사들이 존재한다. 대체로 우리가 의미적 직관으로 파악하고, 타입 논리적으로 재정의한 서술 명사는 '캐, 토록' 테스트와 가장 잘 일치하는 것 같다

4.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

여기서는 앞에서 제시한 서술 명사의 의미적 판별 기준을 가지고 파악한 서술 명사들의 의미적 구조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는 서술 명사의 통사, 의미적 기술을 위해 단순하게 표시된 논리 형식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제시할 다양한 종류의 서술 명사의 논항 결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및 다른 의미 특질을 표시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생성어휘부(Generative Lexicon) 이론(Pustejovsky 1995)이 그러한 이론들 중의 하나이다. 다음 절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의 표상에 따른 몇 가지 종류의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생성어휘 이론의 대강과 서술 명사와 일반 명사의 의미 구조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자.

생성어휘부 이론의 의미 구조는 기본적으로 술어의 의미 정보를 표상하는 풍부한 의미 표상 기제에서 출발한다. 서술어의 의미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논항에 관한 정보이다. 어떤 술어가 몇 개의, 어떤 종류의 논항과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가 하는 정보는 모든 문법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생성어휘부 표상에서는 '논항구조'라는 명사적 구조로 표시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필수 논항과 부가어에 덧붙여, 의미적으로는 필수이나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당연 논항'(default argument)을 인정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한국어에서 당연 논항의 예로는, 일부 형용사의 차원(dimension)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이 책이 두께가 얇다', 강범모 1999 참조).¹⁾ 논항의 표시에는 타입(의미적 유형)까지를 표시하며, 이것이 선택제한(selectional restriction) 현상을 포착해 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요소인 사건 구조는 술어의 상적 특성--상태, 과정, 완성, 성취 등--에 따른 차이를 표시해 준다. 기본적으로 상태, 과정, 전이(transition)의 구분을 인정하고, 전이는 상태, 과정, 또는 다른 전이의 복합적인 상태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전이는 정점(culmination)이 있는 사태(사건) 유형이다. 사건 혹은 복합 사건의 하부 사건들 중 어떤 것이 중점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 술어의 통사적, 의미적인 상적 특성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를 연결시켜 술어의 구체적 의미 특성을 제시하는 특질 구조(qualia structure)도 표시된다. 예를 들어 '집을 짓다'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25) '짓다'
 논항구조 = 논항1 = x: 사람
 논항2 = y: 건물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사건2 = e2: 상태
 제약 = e1 < e2
 중점 = e1
 특질구조 = 형상 = 존재_상태(e2, y)
 작인 = 짓는_행위(e1, x, y)

이 구조는 '짓다'의 의미가 기술하는 사건 혹은 사태(eventuality)에는 사람과 건물이 참여하는데, 이 사태는 두 개의 하부 사건으로 분리되어 전반의 사건인 건물을 짓는 행위와 후반의 건설의 결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체 사건의 중심이 전반부에 와 있어 완성(accomplishment) 동

1) 이 절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료의 일부는 강범모(1999)에 제시된 것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사의 특성을 보이게 한다.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는 이와 같은 일반적 서술의 의미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술 명사와 구별되는 일반 명사의 의미 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예를 들어 '책'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26) '책'

- 논항구조 = 논항1 = x: 텍스트·제조물
-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 사건2 = e2: 과정
- 특질구조 = 형상 = x
- 작인 = 쓰는_행위(z, x)
- 기능 = 읽는_행위(y, x)

이 구조는 책이 테스트인 동시에 제조물이며(복합 타입), 이것은 그것 자체로 파악되며(형상역), 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쓰는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작인역), 그 목적 혹은 기능은 독서의 대상이라는 것(기능역)을 보여 준다.

여기서 일반 명사와 서술어의 의미 구조상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해 낼 수 있다. 명사와 서술어가 모두 논항을 취하지만 그것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은, 명사의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물체 자체, 그리고 술어의 경우에는 (결과적인) 어떤 사태(주로 상태)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Montague (1973) 등 형식문법의 입장에서는 보통 명사('책')와 일항 술어('웃다')를 모두 개체의 집합이라는 동일한 의미 타입으로 파악하는 것에 비하면, 좀더 직관에 부합하는 의미 표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타입 논리적으로 일반 명사와 서술 명사를 구별을 위해, 사태 논항을 서술어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차이를 구분했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 | |
|---------|----------------|--|
| (27) 범주 | 타입 | 생성어휘부 표상 |
| 명사 | <e, ... <e,t>> | 특질구조 = 형상 = x |
| 서술어 | <e, ... <s,t>> | 특질구조 = 형상 = X_사태(e _n , x, y, ...) |

이제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 서술 명사와 일반 명사의 가장 큰 차이는 서술 명사가 논항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8) 가. 공격이 최상의 방법이다.
 나. 아군이 적군을 공격을 하였다.
 다. 적군이 아군에게 공격을 받았다.

서술 명사 '공격'은 홀로 쓰일 수도 있지만, 기능 동사('하다, 받다')의 도움을 받아 논항을 취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곧 서술 명사가 논항을 가지고 있으나 통사적으로 그 논항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의미 표시에서 그것을 당연 논항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는 '또는'의 의미로 파악).

(29) '공격'

- 논항구조 = 당연논항1 = x: 사람|단체
- 당연논항2 = y: 사람|단체|유정물

기능동사의 역할은 이러한 당연 논항들을 일반적인 논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서

술 명사의 논항을 처음부터 일반적인 논항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홀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속격 구문에서 논항 실현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 (30) 가. 아군의 도시의 공격
 - 나. 아군의 공격
 - 다. 도시의 공격

위 예에서 보는 것처럼 행위자 논항과 대상 논항이 모두 실현될 수도 있고 그 중 하나만이 실현될 수도 있다. 서술 명사와 결합하는 속격 명사구를 일종의 논항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통사적으로 필수적인 논항이 아니라 당연 논항이다. 한편 속격 명사구 논항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든 서술 명사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의 속격 논항 실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 (31) 가. 기자들의 잡지의 편집
 - 나. 기자들의 편집
 - 다. 잡지의 편집

- (32) 가. 공장장의 근로자의 파면
 - 나. *공장장의 파면
 - 다. 근로자의 파면

- (33) 가. 변호사의 거지의/거지에 대한 동정
 - 나. 변호사의 동정
 - 다. *거지의 동정

위의 예들은 행위주(혹은 경험주)와 대상을 논항으로 갖는 서술 명사들이 그 두 논항을 모두 속격으로 실현시킬 수 있지만, 속격이 하나만 사용될 경우에는 명사의 종류에 따라 행위자와 대상 모두를 취할 수 있는 것('편집'), 대상만을 취할 수 있는 것('파면'), 그리고 행위자/경험주만을 취할 수 있는 것('동정')으로 구분됨을 보여 준다.

Jung(1997)은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명사들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상(theme)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34) 가 타입 1: 동정, 증오, 존경, 신뢰, 혐오, 증오, 총애, 질투, 생각, ...
 - 나. 타입 2: 파면, 파괴, 해고, 폭파, 감금, 완성, 정화, 확장, 파손, ...
 - 다. 타입 3: 공격, 비판, 연구, 설계, 편집, 저술, 조사, 공부, 연주, 간호, ...

이제, Jung(1997)의 기본적 구분과 대상의 고려를 받아들이면서 이 분류에 내재한 다소의 문제(강범모 1999 참조)를 해결하는, 사건의 중점이 표시되는 의미 표상을 살펴보자. 간략히 말하자면, 타입 1, 2, 3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바른 것이지만, 타입 3이 세분되어야 하고 속격과 관련된 설명 방식을 하위 사건의 중점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위의 타입 1은 모두가 심리적 서술 명사들로서 상태와 관련된 것들로서 다른 타입의 서술 명사들과는 달리 복합적인 하위사건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 (35) '동정'
 - 사건구조 = 사건1 = e1: 상태 · 과정
 - 논항구조 = 당연논항1 = x: 사람
 - 당연논항2 = y: 유정물
 - 특질구조 = 형상 = 동정_상태(e1, x, y)

이상과 같은 의미 구조에서 대상 논항이 두드러진 하부 사건은 없으며 따라서 행위자/경험주가 두드러진 사건 e1만이 초점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유일 속격은 행위자/경험주와 관련된다 반면에, 타입 2 명사와 타입 3 명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하부 사건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사역(causative) 의미 구조이다.

- (36) '파면'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 사건2 = e2: 상태
 중점 = e2
 논항구조 = 당연논항1 = x: 사람
 = 당연논항2 = y: 사람
 특질구조 = 형상 = 파면_결과(e2, y)
 = 작인 = 파면_행위(e1, x, y)

- (37) '편집'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 사건2 = e2: 상태
 중점 = e1
 논항구조 = 당연논항1 = x: 사람
 = 당연논항2 = y: 편집물
 특질구조 = 형상 = 편집_결과(e2, y)
 = 작인 = 편집_행위(e1, x, y)

'편집'의 중점을 e1으로 설정한 것은 '편집하다'가 완성 동사라는 사실과 일관된다 (Pustejovsky 1995). '파면'의 의미 구조와 비교해 보면, 중점 사건과 관련된 논항이 속격으로 실현되는데, '편집'의 경우를 보면, 그곳에 나타나는 모든 논항이 유일 속격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 같다.

그러면 '비판, 연구'와 같이 결과상태가 불확실한 경우는 어떠한가?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상해 보자.

- (38) '비판'
 사건구조 = 사건1 = e1: 과정
 논항구조 = 당연논항1 = x: 사람
 = 당연논항2 = y: 사물
 특질구조 = 작인 = 비판_행위(e1, x, y)

이러한 구조에서 e1의 행위주가 유일 속격 논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앞의 '파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서의 비판'에서와 같이 대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동정'과의 비교에서 발생한다. 앞서 '동정'과 같은 상태 관련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도 부분사건을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비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도 유사하다. 그렇다면 '동정'과 '비판'의 차이는 사건 종류의 차이와 특질 구조에서의 차이(형상 대 작인)로 돌릴 수밖에 없고, 유일 속격 논항의 실현은 작인역에 명세된 논항이 모두 속격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반하여 형상역에 명세된 논항은 제1 논항만이 유일 속격 논항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편집'의 경우와 같다. '비판'과 '동정'의 의미구조를 유사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에 대한' 대상 논항의 구현 패턴을 기술할 수도 있다

- (39) 가. 정부에 대한 중오 (타입 1)

- 나. 정부에 대한 비판 (타입 3)
- 다.*문집에 대한 완성 (타입 3)
- 라.*국가에 대한 파괴 (타입 2)

다시 말해, '-에 대한' 논항은 하부사건이 없는 단순 사건, 즉 비사역적 사건에서 대상 논항이 실현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분된 유형 설정을 가져온다.

- (40) 가. 타입 1: 동정, 증오, 존경, 신뢰, 혐오, 증오, 총애, 질투, 생각, ...
- 나. 타입 2: 파면, 파괴, 해고, 폭파, 감금, 정화, 확장, 파손, ...
- 다. 타입 3a: 설계, 편집, 저술, ...
- 라. 타입 3b: 공격, 비판, 연구, 조사, 공부, 간호, ...

타입 3a와 타입 3b의 차이는 '-에 대한' 논항 가능성 여부이다. 의미적으로 전자는 주로 창조 동사들이다.

5. 나오기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한국어 서술 명사의 타입 의미적 정의와 형태 통사적 판별 기준을 논하였고, 후반부에서는 생성어휘부 이론에 입각하여 서술 명사의 의미 구조 표시를 제안하였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서술 명사는 의미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막연히 '행위, 상태, 관계' 등으로 정의하기 힘들고, 의미 타입으로 정의해야 한다. 일반 명사는 <e, ... <et>> 타입, 술어(명사)는 <e, ... <s,t>> 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 숙, 팔' 등과 같은 명사들은 관계 명사이지만 서술 명사는 아니다.

2) 서술 명사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형태, 통사적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없으나 유용한 것들이 있다: '하다' 기능동사 결합 가능성; '-게, -도록' 결합 가능성; '중', '후', '진' 결합 가능성; 명사문 성립 가능성; '언제나 ~이다' 구문 가능성 등. 이 중에서 '-게, -도록'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판별 기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들이 절대적이 아님이 사실이나 여러 기준이 연합하여 가장 전형적인 서술 명사와 비서술 명사, 그리고 그 사이의 상대적으로 비전형적인 술어, 비서술 명사의 연속성을 파악하게 해 준다.

3) 서술 명사를 의미 구조로 표상할 때 유용한 이론이 생성어휘부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라 명사와 술어의 의미 표시는 형상역에서 구분이 되며, 서술 명사와 일반 술어는 당연 논항의 개념으로 구별될 수 있다. 서술 명사는 그 사건 의미적 특성에 따라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의미 구조의 차이로써 단독 속격 구문에 나타나는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범모 (1999) "어휘 의미 정보의 구조와 표상 - 한국어 명사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5, 83 - 118.
- 류시중 (1995) 한국어 보조용언 범주 연구: 원형 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 강범모, 남승호 (1997) "한국어 술어 중심의 의미구조--생성어휘부 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인지과학회 '97 춘계 학술 발표 논문집, 32 - 40.
- 채희락 (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구문," 어학연구 32-3, 409 - 476.

- 홍재성 (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인문논집 41,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135 - 173.
- 홍재성, 김원근, 김현권, 류시중, 박만규, 박진호, 심봉섭, 안근중, 우순조, 임준서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출판사.
- Bach, Emmon (1986) 'The Algebra of Event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 - 16
- Chae, Hee-Rahk (1997) "Verbal Nouns and Light Verbs in Korean," in *Language Research* 33-4, 581 - 600
- Chierchia, Gennaro and Sally McConel-Ginet (2000) *Meaning and Grammar: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2nd ed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Davidson, Donal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University of Pittsburg Press, Pittsburg.
- Dowty, David (1985) 'On Recent Analyses of the Semantics of Control',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8, 291 - 331.
- Jacobson, Pauline (1990) 'A Categorical Grammar Analysis of Raising',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4, 423 - 475.
- Jung, Yunsun (1997) *Interpretation of Noun Phrases and Its Syntactic and Semantic Implications*,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Kang, Beom-mo (1988) *Functional Inheritance,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a Generalized Categorical Grammar*, Ph.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 Montague, Richard (1973)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J. Hintikka, J. Moravcsik, and P. Suppes (eds) *Approaches to Natural Language*, D Reidel, Dordrecht. Reprinted in R. Thomason (ed.) (1974) *Formal Philoso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rsons, Terence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Cambridge: The MIT Press.